

## 감초주사(SNMC·강력 네오미노화젠)의 효능과 사례 ①

많은 환우들이 감초주사의 효능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에 이이노 시로우 박사(일본 성마리안나 의과대)의 바이러스 간염 문답식 해설집 《B형, C형 간염박사》(김경희 박사 편역, 98년 3월 태웅출판사 제4판)에서 관련된 부분을 옮겨 본다. - 편집인 도움말

감초주사는 간염을 진정시키며 간세포의 파괴를 예방하고, 간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말하자면 간장의 파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약이다. 이 약을 끈기있게 사용하면 상당히 간염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감초주사는 통상 40ml의 주사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부작용은 없다. 그러나 때로는 100ml 정도의 대량 주사가 필요하며 이 때는 혈압이 오르는 것과 혈액 중의加里素(K)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혈액 중의 K 성분이 감소되면 근육이 무력해진다. 그러나 이 부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1일 1~2정만 복용하면 억제할 수 있다)

### 1. 감초주사 치료와 바이러스의 양

**Q.** C형 간염 환자이다. 감초주사를 60ml 연속 투여해서 GOT·GPT가 50-60 IU로 내려갔다. 바이러스의 양이 감소되었을까 궁금하다.

**A.** 감초주사는 바이러스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치료법은 아니므로 이 약으로 GOT·GPT가 감소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염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증가할지도 모른다. 혈액 중의 양이란 그 바이러스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세밀하게 본다면 C형 간염도 B형 간염과 같이 GOT·GPT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것에 선행해서 바이러스는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한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GOT·GPT의 변동이 적은 것과 같이 혈액 속의 바이러스량의 변동도 적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GOT·GPT가 높은 수치로 계속되더라도 반드시 바이러스의 양이 많다고는 할 수 없고 반대로 수치가 낮아도 바이러스의 양이 적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간염이 진정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양이 많을 수도 있다. 감초주사를 사용했을 때도 같은 해석으로 이 치료로 GOT·GPT가 내려가면 바이러스의 양은 반대로 증가할지도 모른다.

바이러스량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병의 진행 속도와는 관계가 없고 또 병의 진행 상황과도 관계가 없다. 감초주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간염을 억제하는 데 있고 그로 인해 GOT·GPT가 내려가면 병의 진행 속도도 지연된다는 것이다

### 2. 감초주사의 투여법

**Q.** C형 만성 간염 환자로 IFN 치료가 무효이며 현재 GOT 130 IU, GPT 156 IU이다. 감초주사를 주 3회 40ml씩 투여하고 있으나 수치는 호전되지 않는다. 감초주사의 효과적 투여법을 하고하여 주기 바란다

**A.** GOT·GPT의 수치로 보아서는 간염이 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다.

감초주사의 현재의 양과 횟수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먼저 주 3회에서 주 5~6회로 횟수를 증가시켜 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횟수를 증가시켜도 GOT·GPT 수치가 내려가지 않을 때는 사용량을 증가시키되 60ml, 80ml로 서서히 증가시키기보다는 가능하면 한 번에 100ml를,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능하면 80ml로 한 번에 양을 증가시키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100ml로 증가시켜 수주 간 계속하면서 GOT·GPT 수치의 상태를 본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려가 그 후 1~2주에 1회 검사를 해서 GOT·GPT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 100ml를 80ml로 감소를 계속시킨다. 그래도 검사 수치가 내려간 상태로 있으면 다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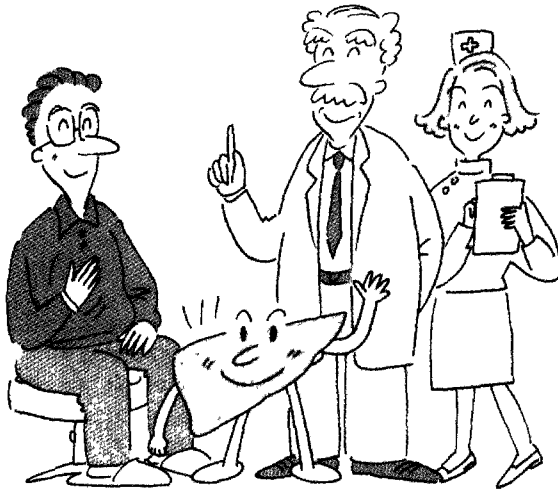
60ml로 감소시키고 다시 40ml로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서 안정된 것으로 보이면 수개월 경과를 본 다음 1주 간의 횡수를 1회 감소시켜 5회면 4회로 만들어 또 수개월 살펴본다. 변화가 없으면 1회 또 줄여 3회로 한다. 이와 같이 아주 서서히 줄여 간다.

감초주사라는 약은 어디까지나 대증 요법의 약이므로 사용할 때만 효과가 있고 급격하게 줄이거나 중지하면 치료 전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다고는 하나 계속해서 GOT·GPT가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 도중 어느 정도 주사를 계속하지 못하였다더라도 간장의 염증은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주사의 감량이 잘되어 주 1회 40ml만으로도 효과가 계속되는 사람이 있다. 많은 환자의 경우 주 2~3회까지 줄이는데 1~2년은 걸린다.

주의할 점은 가령 40ml라고 해도 매일 주사했을 때 또는 1일 100ml로 양을 증가했을 때 감초주사의 부작용인 혈중加里움(K)의 감소, 혈압 상승,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 약의 주성분인 글리시루리진의 작용의 나쁜 점만 고쳐주는 알다톤 A를 1일 1~2정 복용하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감초주사의 주성분인 글리시루리진은 몸 속에 있는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과 그 구조가 너무나 닮아서 그 작용으로 몸 속의 나트륨(Na)이 고이기 쉽고 K는 감소해 혈압의 상승, 몸 속의 수분 증가를 일으킨다.

감초주사를 계속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약의 주성분인 글리시루리진의 내복약(글리시론정 등) 또는 한방약(소시호탕 등) 등 감초라는 생각이 배합된 처방과 같이 복용할 때이다. 동시에 복용하면 감초주사의 부작용만이 강화된다. 사실은



글리시루리진이란 성분은 감초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이 감초가 들어 있는 한방약은 많다. 또 글리시루리진은 주사로는 효과가 있으나 입으로 복용하면 글리시루리진이 장내에서 변화해서 간염에 대한 효과가 크게 감소된다. 그러나 부작용은 내복이나 주사나 동일하므로 감초주사를 계속하면서 글리시루리진을 포함한 약을 복용하면 뜻밖의 부작용을 당

할 때가 있으니 감초주사를 하고 있을 때는 감초를 포함시킨 한방약 등은 복용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 인터페론(IFN)과 감초주사의 병용

**Q.** 인터페론 치료를 받아도 검사의 수치가 호전되지 않을 때에 감초주사를 병용하면 효과가 있는가?

**A.** 인터페론을 사용하면 70~80퍼센트의 사람은 GPT가 내려가지만 남은 20~30퍼센트의 사람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때도 있어 이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가면역성의 간장병도 있고 그 때문에 간장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페론 그 자체도 간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인터페론을 사용할 때는 GOT·GPT가 상승하면 주의깊게 관찰해야 된다.

인터페론을 사용해도 GOT·GPT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감초주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무엇이 원인이 되어 GOT·GPT가 상승했는가, 또는 내려갔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인터페론이 사용되지 못할 때 감초주사로 만성 간염을 치료하여 효과를 보는 수도 있고 감초주사를 써온 사람에게 인터페론을 투약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또 간경변 환자에게 인터페론 치료를 한 뒤에 감초주사의 효과가 향상되는 예도 있다.

현재 양자의 병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초주사를 병용했다고 해서 인터페론의 항바이러스 작용이 더 강화된다는지, 약화된다는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계속)